



기업경영분석개론 - Ⅲ. 재무제표의 이해



김종열
jrykim@gmail.com

중앙대학교 경영학 학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 (주)에스엠비경영연구원 대표이사
(현)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현) KC코트렐(주) 상임감사

우리는 본 저널 6월호¹⁾에서 재무정보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였고, 9월호²⁾에서는 기업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활동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재무제표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기본소양은 이룩되었다고 생각하고 재무제표의 종류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그 각각의 구성과 내용, 작성원칙과 형식 그리고 유용성과 한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이들 재무제표의 상호 관계를 도식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재무상태표

1.1 재무상태표의 정의

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그리고 재무상태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재산적 가치와 기업이 채권자 및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원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

는 자산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 및 주주의 지분인 자본이 동시에 비교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연속적인 경영활동 과정 중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시점은 재무보고서의 보고기간 종료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의 재무상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금액이란 의미이다.

1.2 재무상태표의 구성

재무상태표는 일정(보고)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접근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무상태표의 이해를 위한 세 가지의 관점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그 첫 번째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회계용어로는 자산(資産, asset)이라고 한다.

1) 플랜트저널, Vol.5, No.2, pp.14~27 참조

2) 플랜트저널, Vol.5, No.3, pp.17~24 참조

둘째, 회사는 위의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금전적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원이라고 하면 "자금의 조달 원천"을 의미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은다. (자본금)
- ② 은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서 빌린다. (부채)
- ③ 사업을 운영하여 이익을 낸 후 그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여 둔다. (이익잉여금)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적인 개념인 자산(資産, asset)과 자금의 조달원천 중 하나인 부채(負債, liability ; ②번), 그리고 또 다른 원천인 자기 자본(自己資本, stockholder's equity ; ①, ③번)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하단에 삼각형의 균형 받침대가 있다. 이를 무게의 중심점이라고 하자.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금운영이, 오른쪽에는 자금조달이 같은 크기의 무게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자금운영이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계획이라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한 자금계획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있다. 즉, 자본(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또 부채(타인자본)로 조달한다는 뜻이다.

종합하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데 이것이 자산이다. 그리고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 자금은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이 자본이다. 또한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부채이다.

따라서 출자를 받은 자금과 빌린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그 크기가 같아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이를 재무상태표등식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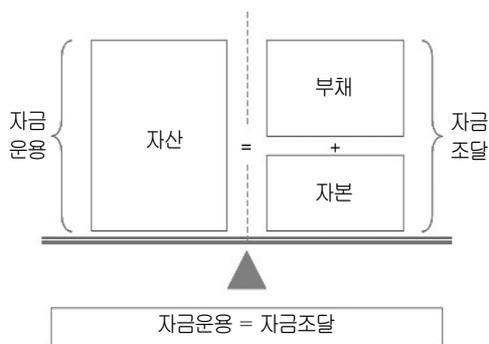
$$\text{※ 자산} = \text{부채(타인자본)} + \text{자본(자기자본)}$$

이상의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본지 6월호³⁾에서 ABC주식회사에 투자하였던 가상의 인물 김상수는 대학생 시절에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해 보자. 그가 언젠가 직접 주식투자를 해 보겠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종자돈 100만원을 마련하였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상수는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종자돈 100만원을 입금하였다. 100만원을 가지고 1주당 4만원짜리 대한항공 주식 20주를 샀다. 얼마 후 대한항공 주식이 5만원으로 올라 재미를 본 상수는 형으로부터 100만원을 더 빌려서 대한항공 주식을 5만원에 추가로 20주를 매수하였다.

위의 사례를 가지고 상수의 주식투자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면 **표 1**과 같다. 단, 증권거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대하여 살펴보자. 상



[그림 1] 재무상태표의 구성과 원리

3) 플랜트저널, Vol.5, No.2, pp.14~27 참조



수의 증권계좌 잔고를 열어보면 대한항공 주식 평가액 200만원(40주 5만원)과 현금 20만원으로 총 계좌 평가액은 22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상수가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운용하는 220만원 대하여 재무상태표 형식으로 표시해 보면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위와 같이 표시하게 된다. 즉,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상수의 자금운용 내역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를 기업회계 상의 용어로는 자산(assets)이라고 표현한다.

다음으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는 어떤 내용이 표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오른쪽에는 형에게서 빌린 돈 100만원과 상수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한 종자돈 100만원 및 주식투자로 번 돈 20만원으로 총 220만원이 표시되어 있다. 재무상태표의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는 220만원으로 동일한데 내용은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상수가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자금을 운용한 내역이 표시되는데 반해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 원천이 표시되는 것이다.

종자돈 100만원은 상수가 스스로 마련한 돈으로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상수 자신의 돈이다. 이와 같이 상수 스스로 조달한 돈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는 자금을 기업회계 상으로는 자본(equity)라고 표현한다. 반면 형에게서 빌린 돈 100만원은 종자돈과는 달리 나중에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기업회계 상으로는 부채(liabilities)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주식투자로 번 돈 20만원은 무엇일까? 이는 종자돈(자본) 및 형에게서 빌린 돈(부채)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기업의 경우로 보면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의 일부인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된다.

앞에서 작성한 표 1의 재무상태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하였으나, 실제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에 따라 다시 작성해 보면 표 2와 같다.

그런데 실제로 신문지상을 통하여 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표 2의 양식과는 조금 다르다. 표 2의 재무상태표는 T자형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형식으로 '계정식'이라고 하나, 실제로 공시되는 형식은 '보고식'이라 하여 표 3과 같은 형태로 공시되어 있다. 계정식이든 보고식이든 표시 형식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자.

〈표 1〉 재무상태표(계정식)①

(금액: 만원)

| | | | |
|--------|-----|-----------|-----|
| 현금 | 20 | 형에게 빌린 돈 | 100 |
| 대한항공주식 | 200 | 자기가 번 돈 | 100 |
| | | 주식투자로 번 돈 | 20 |
| 합계 | 220 | 합계 | 220 |

〈표 2〉 재무상태표(계정식)②

(금액: 만원)

| | | | |
|----------|-----|---------|-----|
| 현금및현금등가물 | 20 | 차입금 | 100 |
| 단기매매증권 | 200 | 부채총계 | 100 |
| | | 자본금 | 100 |
| | | 이익잉여금 | 20 |
| | | 자본총계 | 120 |
| 자산총계 | 220 | 부채와자본총계 | 220 |

〈표 3〉 재무상태표(보고식)

(금액: 만원)

| | |
|----------|-----|
| 현금및현금등가물 | 20 |
| 단기매매증권 | 200 |
| 자산총계 | 220 |
| 차입금 | 100 |
| 부채총계 | 100 |
| 자본금 | 100 |
| 이익잉여금 | 20 |
| 자본총계 | 120 |
| 부채와 자본총계 | 220 |



(1) 자산(資産, Assets)

자산이란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이나 상품, 건물, 비품 등과 같은 재화나 경영활동 과정에서 대여금이나 외상매출금 등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제적 자원을 총칭하여 자산이라 한다.

이러한 자산을 재무상태표 상에서 그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표시한다면 재무상태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주주 또는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산의 구분이라고 하며, 유동성과 보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림 2**와 같이 구분한다.

① 유동자산(流動資産, current assets)이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자산이다. 이는 다시 그 형태에 따라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단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만기일이 도래한 부채 등의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유동자산의 정도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재무정보라 할 수 있다.

- 당좌자산(當座資産) : 1년 이내에 판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과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단기대여금, 유가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재고자산(在庫資産) : 1년 이내에 제조 또는 판매의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원재료와 제품 및 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비유동자산(非流動資産, non-current assets)이란 투자목적 또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 투자자산(投資資産) : 여유자금의 증식 또는 다른 회사의 지배·통제를 위해 장기간 투자한 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유형자산(有形資産) :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비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무형자산(無形資産) :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개발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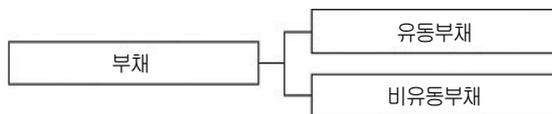
(2) 부채(負債, Liabilities)

기업이 출자자 이외의 주체로부터 빌리고 있는 자금으로, 타인자본이라고도 한다. 또한 부채는 기업이 개인이나 회사 또는 기업의 외부조직에 대하여 짊어지고 있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채무나 의무를 말하기도 한다.

재무상태표상에서 부채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의무가 도래하는 유동부채와 1년



[그림 2] 자산의 분류



[그림 3] 부채의 분류



이 지나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 ①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② 비유동부채(非流動負債, non-current liabilities)란 만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자본(資本, Stockholder's equity)

자본은 주주의 출자지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재산을 의미하며, 이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입한 납입자본(액면금액 총발행주식수)과 경영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이익의 유보금액 합계액이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되는데, 자본금은 주주의 출자액이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각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하여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이다.

그리고 자본조정은 자본의 조정항목으로 특성상 자본에 부가하거나 차감하여야 하는 계정 또는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계정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 ① 자본금(資本金, capital stock)이란 발행한 주식의 액면 총액인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성된다.

- 보통주자본금 : 보통주 발행주식수 × 보통주 액면가
- 우선주자본금 : 우선주 발행주식수 × 우선주 액면가

②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은 주주 또는 자본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 또는 자본가와의 거래란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증자 또는 발행된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잉여금의 예로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

③ 자본조정(資本調整)이란 자본 총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주식매수선택권,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있다.

④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은 기업의 경영성과인 이익 중 당기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 또는 차기 이후에 배당할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 유보한 금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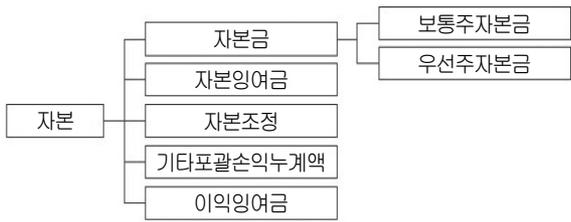
1.3 재무상태표의 작성원칙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도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기업이 작성하게 되는 재무상태표는 그 왼쪽에는 자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표기되고, 그 오른쪽에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된 각각의 계정과목과 그 금액이 표기된다.

이러한 재무상태표 상의 작성방법은 다음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① 구분표시의 원칙 :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



[그림 4] 자본의 분류



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는 원칙이다.

- ② 총액기준의 원칙 :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 항목을 서로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③ 1년 기준의 원칙 : 유동과 비유동의 분류기준으로서 일명 “one year rule”이라고도 한다. 즉,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는 원칙이다.
- ④ 유동성 배열법 : 재무상태표에 배열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배열한다는 원칙이다.
- 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미결산계정의 계상 금지 :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1.4 재무상태표의 형식 이해

우리는 위에서 재무상태표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어떠한 원칙으로

작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무상태표의 형식을 논하기 전에 위의 내용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보고시점)의 기업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둘째, 기업의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각각은 재무상태표의 작성원칙 즉, 구분표시의 원칙, 총액기준의 원칙, 1년 기준의 원칙, 유동성배열법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서 그 중요 구성인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보고서 상에서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재무상태표의 보고형식을 보고식(報告式)과 계정식(計定式)으로 구분한다.

보고식이란 재무상태표를 보고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기 위한 양식으로 그림 5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작성방법은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나열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자산, 부채에 해당하는 각 항목은 먼저 1년 기준의 원칙(one year rule)을 적용하여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순으로 그 항(項)을 구분하고 부채에도 역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그 항을 구분하며, 그 구분내에서의 과목 표기는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하여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나열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계정식이란 그림 6과 같이 재무상태표의 구성내용을 회계의 기장구분원칙에 따라 차변과

제xx기 : 보고 기준일

| 계정 과목 | 금액 |
|--------------|----|
| 자산 (해당과목) | |
| 부채 (해당과목) | |
| 자본 (해당과목) | |

[그림 5] 재무상태표 양식(보고식)

제xx기 : 보고 기준일

| 계정 과목 | 금액 | 계정 과목 | 금액 |
|--------------|----|--------------|----|
| 자산 (해당과목) | | 부채 (해당과목) | |
| | | 자본 (해당과목) | |

[그림 6] 재무상태표 양식(계정식)



대변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형식이다. 이는 회계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며 T자 형식을 이용하여 왼쪽(차변)에는 자산을, 오른쪽(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대응하는 형식으로 기입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식과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에 해당하는 각 항목은 먼저 1년 기준의 원칙(one year rule)을 적용하여 구분하며, 그 구분 내에서의 과목 표기는 유동성 배열법을 적용하여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나열하여 작성한다.

1.5 재무상태표의 유용성

이상과 같은 재무상태표는 일정(보고)시점 현재의 기업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무보고서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재무상태표의 유용성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財務狀態, financial position)란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자원의 가치인 자산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구비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산을 구매·획득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채권자로부터는 얼마만한 부채를, 그리고 투자자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자본을 조달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즉, 기업이 경제적 자원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의 조달방법을 부채와 자본을 통하여 설명한다.

둘째, 해당 기업의 투자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표 상에서 기업의 각종 투자항목에 대한 투자성과의 정도를 측정하여 투자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투자항목이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 투입하게 되는 총자산, 주주의 출자지분인 순자산(자기자본) 등을 말하고, 투자성과관 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말한다.

$$\text{※ 총자산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평균자산총액}} \times 100$$

$$\text{※ 자기자본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평균자기총액}} \times 100$$

셋째, 기업의 지급능력(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지급능력이란 유동성을 말한다. 그리고 유동성(流動性)이란 자산의 경우 현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부채는 만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때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만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유동성이 높다.

$$\text{※ 순운전자본}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ext{※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따라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보다 많을수록 단기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지급 능력은 순운전자본과 유동비율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유동비율이 150% ~ 200% 이면 단기 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넷째,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즉 장기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부채와 자본의 구성 비율을 재무구조(財務構造)라고 말한다. 여기서 구성 비율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하여 부채총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채권자에 대한 기업의 최종적인 담보인 셈이므로 부채와 자본의 크기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기업의 담보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자기자본이 부채보다 많을수록 담보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기지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본총액과 부채총액을 비교하는 산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부채비율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일반적으로는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면 장기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text{※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본총액}} \times 100$$

다섯째,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기업의 고유한 사업목적은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고유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은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제조와 무관하게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타 회사 주식 등은 재무상태표상 투자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본업과 무관한 자산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상기 이외에도 경영규모의 파악, 자산의 구성내역 파악 등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1.6 재무상태표 정보표시의 한계성

우리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적인 강점이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가 유용하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회계에는 한계성도 있다. 회계가 안고 있는 이러한 한계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표의 유용성에도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상태표가 안고 있는 한계성으로 인해 재무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중요한 한계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모두 자산으로 계상되고 있지는 않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란 크게 2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외부로부터 응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자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 내부에서 생겨나는 자원이다. 전자의 경우 취득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되어 자산에 계상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우수한 경영진과 연구개발 인력 같은 인적자원, 로고, 상표 등을 포함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이러한 것들은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상의 자산으로 계상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기업의 경제적 자원 모두가 현재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다.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은 취득시의 가격인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다.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모든 자산의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자산의 보유를 통한 가치의 증가도 평가하여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설립초기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재무상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현행 가치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 불가피한 회계추정이 개입된다.

기업이 재무제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로 성사된 모든 거래의 재무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넷째, 회계기준에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 중 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일례로서 감가상각방법을 들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등 여러 가지가 허용되고 있으며,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간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이로 인한 순이익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간 재무상태



를 비교하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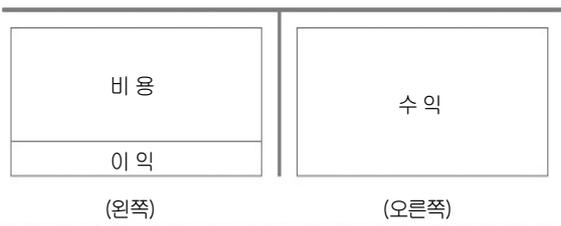
다섯째,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경우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손익계산서

2.1 손익계산서의 정의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profit and loss statement; P/L)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표시하여 주는 재무제표이다.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며, 재무상태표가 스냅사진에 비유된다면 손익계산서는 활동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이들의 차액인 순손익으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앞에서 재무상태표를 배울 때 상수가 주식투자를 통해 벌은 돈이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상수의 사례에서 보면 주식투자를 통해 벌은 돈 20만원이 손익계산서상에서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며 이러한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것이 재무상태표에서의 자본 항목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인 것이다. 이와 같이 경영성과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도 가능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초래한 모든 원인들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질적으로 높은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7] 손익계산서의 구성과 원리

2.2 손익계산서의 구성

손익계산서에서 손익이라는 용어는 손실(損)과 이익(利益)의 준말이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서 손익을 계산해 본다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과 그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계산해 본다는 말이다.

즉, 판매 등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먼저 계산하고, 다시 그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였는가를 계산한다. 우리는 전자를 수입(매출)이라고 하고 후자를 비용(원가)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입과 비용의 차이를 손익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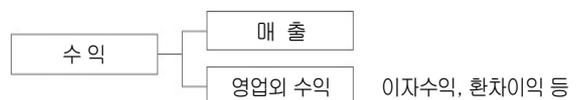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수입, 비용, 손익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서 판매 등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오른쪽에 기입한다. 그리고 이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왼쪽 상단에 기입하고, 이들 두 금액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왼쪽 아래에 기입한다. 이것이 순이익이다. 만일 비용이 수입보다 크다면 이들 두 금액의 차이는 오른쪽 하단에 기입하여야 하고, 이것이 순손실이다.

(1) 수익(收益)

수익(revenues)이란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증가분으로, 이에 는 매출과 용역수익이 포함된다.

따라서 수익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창출한 재화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한 가치의 총계를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수익은 경영활동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며, 그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수익의 분류



(2) 비용(費用)

비용(expenses)이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감소분이다. 이러한 비용에는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인 매출원가와 판매 및 관리활동에서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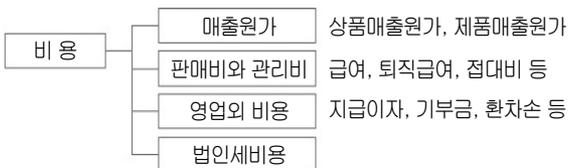
따라서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멸된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한 자산으로 보면 되며, 결국은 기업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비용 역시 기업의 경영활동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3) 순손익(純損益)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 기업의 수익 및 이득에서 비용과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익이라 하고, 수익과 이득보다 비용과 손실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순손실이라 한다. 이때 특정 회계기간의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이라 한다. 따라서 당기순손익에는 당해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와 영업외활동에 의한 성과가 모두 포함된다.

2.3 손익계산서에는 작성원칙이 있다.

손익계산서도 작성원칙이 있다.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 원칙을 포함하여 살펴보자.



[그림 9] 비용의 분류

우선 기업이 작성하게 되는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실현된 수익으로 구성된 각각의 계정과목과 그 금액이, 그리고 비용항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계정과목과 그 금액이 표기된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표시하는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 발생주의 원칙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그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총액주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구분표시의 원칙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4 손익계산서 형식의 이해

이상의 내용을 지난 호(본지 9월호)⁴⁾에서 상수가 투자하여 주주총회 자료로 보고되어 온 ABC주식회사의 제3기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설명해 보자.

4) 플랜트저널, Vol.5, No.3, p.19 <표 3> 참조



위의 손익계산서에서 세부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의 구분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그 구분을 대분류 기준으로만 정리하였다. 또한 손익계산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서 그 중요 구성인 수익과 비용을 보고서 상에서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형식을 보고서(報告式)와 계정식(計定式)으로 구분한다.

보고식이란 손익계산의 보고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기 위한 양식으로 표 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작성방법은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작성원칙 중 구분표시의 원칙에 의한 손익구분의 순으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의 순으로 나열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계정식이란 표 5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구성내용을 회계의 기장구분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형식이다. 이는 회계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T자 형식의 작성형식을 취한다. T자를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차변)에는 비용(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과 당기순이익을 대변에는 수익(매출액, 영업외수익)과 당기순손실을 대응하는 형식으로 기입하여 작성한 것을 말하며, 보고 및 공표용으로는 작성되지 않고 설명용으로 많이 작성하여 사용한다.

ABC주식회사의 제3기 손익계산서를 간략히 설명하여 보자. 설명의 편의상 표 5 계정식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표 4의 보고식을 염두에 두고 서로 연결하여 가면서 이해하였으면 한다.

우선, 표 5에서 오른쪽(대변) 맨 위를 보면 매출액이 12,500,000천원 계상되어 있다. 이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매출원가이다. ABC 주식회사는 8,140,000천원의 매출원가를 투입하여 12,500,000천원의 매출을 이루어 내었으므로 여기까지 만으로 손익을 계산하면 4,360,000천원의 이익이 계산되는데 우리는 이를 **매출총이익**이라고 한다.

여기서 매출원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조원가명세서에서 별도로 설명되는데 본고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의 설명은 생략하겠다. 다만 판매하기 위한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 투입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에 관한 하나의 기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사실만은 알아두기 바란다.

다음은 표 5의 왼쪽(차변) 중간쯤에 있는 판매관리비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제조·판매·관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표 4〉 손익계산서(보고식)

| (금액: 천원) | |
|-------------|------------|
| 매출액 | 12,500,000 |
| 매출원가 | 8,140,000 |
| 매출총이익 | 4,360,000 |
| 판매관리비 | 2,100,000 |
| 영업이익 | 2,260,000 |
| 영업외수익 | 3,050 |
| 영업외비용 | 42,00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21,050 |
| 법인세비용 | 555,260 |
| 당기순이익 | 1,665,790 |

〈표 5〉 손익계산서(계정식)

(금액: 천원)

| | | | |
|---------|------------|---------|------------|
| 매출원가 | 8,140,000 | 매출액 | 12,500,000 |
| 매출총이익 | 4,360,000 | | |
| | 12,500,000 | | 12,500,000 |
| 판매관리비 | 2,100,000 | 매출총이익 | 4,360,000 |
| 영업이익 | 2,260,000 | | |
| | 4,360,000 | | 4,360,000 |
| 영업외비용 | 42,000 | 영업이익 | 2,260,000 |
| 법인세전순이익 | 2,221,050 | 영업외수익 | 3,050 |
| | 2,263,050 | | 2,263,050 |
| 법인세비용 | 555,260 | 법인세전순이익 | 2,221,050 |
| 당기순이익 | 1,665,790 | | |
| | 2,221,050 | | 2,221,050 |



데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조원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판매비, 사업전체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에 집계하는 것이다. 제조원가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출원가에서 집계하게 되며, 판매비 및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본사 등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매비와 관리비(또는 판매관리비)의 항목으로 합쳐서 표시된다. 이러한 판매관리비에는 생산공장 이외의 본사 및 사업소에서 발생한 급여·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비, 경상개발비 등이 계상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항목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표 5의 중간을 보면, 매출총이익 4,360,000천원에서 판매관리비 2,100,000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손익을 계산하면 2,260,000천원의 이익이 계산된다. 이를 우리는 영업이익이라 하며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의 이익임을 밝혀둔다.

이번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계산과정을 살펴 볼 차례이다. 이는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표 5에서 보면 영업이익 2,260,000천원에서 영업외수익 3,050천원을 더하고 영업외비용 42,000천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2,221,050천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계산된다.

참고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용어 그대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예상손익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앞의 영업이익까지만 구하여 판단한다. 또한 영업외수익(비용)에는 이자수익(비용), 임대료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손실),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손실), 외환차익(차손), 외화환산이익(손실), 지분법이익(손실) 등

이 포함되나 이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의 계산과정을 살펴볼 차례이다. 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표 5에서 보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21,050천원에서 법인세비용 555,260천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1,665,790천원으로 계산된다.

위에서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13%, 25% 등으로 세율이 법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위의 예에서는 편의상 부과세율을 30%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2.5 손익계산서의 유용성

이상에서 우리는 손익계산서란 무엇이며, 구성내용과 그 양식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유일한 재무보고서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 하면 회계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성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유용성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정보에 관한 유용성 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여 준다.

기업 활동은 영업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즉, 기업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영업활동이다. 그리고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은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총칭하여 영업외활동이라 한다. 따라서 각 활동에서 발생된 성과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활동에서 발행한 것을 수익(revenues, 매출



액)과 비용(expenses,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이라 하고 영업외 활동에서 발생된 것을 이득(gains)과 손실(losses)이라 하여 이들을 손익계산서에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즉,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영업손익으로 표시하고, 영업외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영업외손익(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당해 기업의 경영성과의 발생원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이익창출 능력인 수익성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회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당해 기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다. 순현금흐름은 이익창출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미래의 순현금흐름도 미래의 이익창출능력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매 결산기에 경상적이고도 반복적인 항목과 비경상적이고도 비반복적인 항목은 미래에 그 발생 가능성이 서로 다르다. 미래의 이익창출 능력에 대한 예측력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항목과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항목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리하여 이득과 손실 중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항목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을 특별이익과 특별손실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발생원천별·발생빈도별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미래의 이익창출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그가 창출한 이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형식으로 배당하게 된다. 손익계산에서는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가 보고된다고 하였다. 경영성과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순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2.6 손익계산서 정보표시의 한계성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의사결정에 이용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은 경제학상의 이익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 상에 포함하는 순이익은 화폐가액으로 측정될 수 있는 이익만을 포함하고 있고, 또 기업의 순자산을 실제로 증가시켰으나 화폐가액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손익계산서의 작성시에도 회계담당자의 주관과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셋째,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허용으로 인해 경영성과가 서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 간 비교와 동일 기업의 기간별 비교를 저해시키게 된다. 한편 회계처리방법과 추정사항에 대한 변경 등을 이용해서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이익이 조작될 여지가 있다.

넷째,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은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은 채권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차감한 후 계산된다. 그러나 투자자에 대한 기회비용 개념으로서의 자금조달 비용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최근 실무에서는 재무제표 분석시 투자자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지표로 EVA(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 부가가치)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

기업의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우선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일부를 분배하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위하여 기업 내에 유보하게 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중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 하고, 반대로

손실인 경우에는 결손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서 배당, 유보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되고 결손금 또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통해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缺損金處理計算書)란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의 증감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에 해당된다. 이익잉여금의 증감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당기순이익과 배당이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의 증가 요인이고, 당기순손실과 배당은 감소 요인이다.

또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당기에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처분전이익잉여금이라 하며,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는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지난 호(본지 9월호)⁵⁾에서 상수가 투자하여 주주총회 자료로 보고되어 온 ABC

주식회사의 제3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활용하여 설명해 보자.

표 6은 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중 2008년도 해당분만 발췌하고, 여기에 ABC주식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일반론적인 과목을 추가하여 작성한 표이다.

표 6을 보면 2008년도에 달성한 당기순이익을 처분하기 위한 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표 6의 상단에 있는 처분예정일은 2008년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2009년 3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주주총회 일자에 처분이 승인될 것으로 예정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하에서 과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란 직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금액이다. 즉 전기의 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이익잉여금 처분결의를 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인 것이다.

ABC주식회사는 전기에 처분하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당기에 포함하여 처분 가능한 금액이 425,000천원임을 알 수 있다.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과거부터 적용하여 오던 회계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자산 또는 부채의 해당 계정과목에 적용하여 계산된 손익의 누적효과를 비교재무제표 최초 회계기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ABC주식회사는 회계기준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은 없다.

(3) 중간배당액

중간배당은 회계기간 중간에 배당하는 것으로 상

<표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3기 :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 예정일 : 2009년 3월 20일

| 과 목 | 금액 (천원) |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2,090,790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425,000 | |
| 2. 회계변경의누적효과 | 0 | |
| 3. 중간배당액 | 0 | |
| 4. 당기순이익 | 1,665,790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900,000 |
| 1. 이익준비금 | 250,000 | |
| 2. 배당금 | 650,000 | |
| 주당배당률 (당기: 50%) | | |
| 3. 임의적립금 | 0 | |
| 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1,190,790 |

5) 플랜트저널, Vol.5, No.3, p.19 <표 4> 참조



법의 규정에 의하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BC주식회사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은 없다.

(4)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당기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과 같은 금액이다. 표 4에서 보면 ABC주식회사는 1,665,790천원임을 알 수 있다.

(5) 미처분이익잉여금

앞의 (1)에서 (4)까지를 가감하게 되면 당기에 처분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산된다. 표 6에서 ABC주식회사의 2008년에 처분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90,790천원으로 이는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에 표시된다.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보고일 현재인 2008년 12월 31일에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익잉여금처분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처분 예정일이 2009년 3월 20일로 되어있는데 이는 ABC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을 말하는 것이다.

(6)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을 말하며, 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는 법정적립금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그 세부 내용은 주석에 기재한다. 현행 법률상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은 대표적으로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 있다.

상법의 규정을 보면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한 경우에는 적립의무가 없다. 이익준비금의 경우 배당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표 6에 의하면 ABC주식회사는 이번 회기에 250,000천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7)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시설적립금등이 있다. 그러나 ABC주식회사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

(8) 배당금

당기에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액으로 현금 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당률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주기 표시하고,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배당금의 산정내역 등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기재한다.

표 6에 의하면 ABC주식회사는 2008년도에 650,000천원을 배당하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당배당률은 50%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배당률이란 액면가를 기준으로한 배당률(%)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을 설명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의 변동 결과만이 반영될 뿐 이의 증감 원인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보고되기 때문이다.

둘째, 당기경영성과에 대한 주주총회의 처분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당해 기업의 배당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기업이 적립하는 각종 적립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경영정책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4. 자본변동표

4.1 자본변동표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자본변동표란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변동표에는 소유주의 투자(증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배당), 그리고 포괄이익(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재무제표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만이 기본 재무제표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의 일부인 이익잉여금의 구성항목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만을 나타낼 뿐 자본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변동내용

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가 2007년부터 도입되면서 자본 구성항목의 모든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본변동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새로이 채택하였다.

표 7은 2008년도 말 현재 ABC주식회사의 자본 구성항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변동내역을 정리하였다.

(1) 기초/기말 금액

자본변동표 맨 상단에 있는 2008. 1. 1(기초)란 자본을 구성하는 5가지 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다. 표 7 상에서의 금액 1,465,000천원은 2007년 12월 31일 ABC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상⁶⁾의 자본합계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자본변동표 맨 상단 금액은 2007년 12월 31일자 금액을 2008년 1월 1일로 이월시켜 기초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맨 아래의 2008. 12. 31(기말) 금액도 2008년 ABC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과 동일한 금액이다. 즉, 자본변동표란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의 기초 금액에

<표 7> 자본변동표 양식

| ABC주식회사 과 목 | 2008년 01월 0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 | | 총계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
| 1. 2008. 1. 1(기초) | 800,000 | | 665,000 | 1,465,000 |
| 2. 세부변동내용 | | | | |
| 유상증자 | 500,000 | 1,500,000 | | 2,000,000 |
| 연차배당 | | | -240,000 | -240,000 |
| 당기순이익 | | | 1,665,790 | 1,665,790 |
| 3. 2008. 12. 31(기말) | 1,300,000 | 1,500,000 | 2,090,790 | 4,890,790 |

6) 플랜트저널, Vol.5, No.3, p.18 <표 2> 참조



서 기말금액까지의 변동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나타내 주는 재무제표인 것이다.

(2) 세부 변동내용

2007년 12월 31일자 자본항목의 잔액이 2008년 1월 1일자로 이월되어 자본변동표 맨 상단에 표시된다. 자본변동표 맨 상단과 맨 아래에 표시되는 2008년 12월 31일(기말) 금액의 사이에 표시되는 내용이 2008년 중 ABC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자본의 변동내용들이다.

① 자본금

자본금 변동은 기중에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ABC주식회사의 경우 2008년 중에 유상증자가 1회 있었고 그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는 500,000천원이었다.

② 자본잉여금

ABC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액면가보다 비싸게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으로 2008년 중 자본금 증자시에 1,500,000천원이 발생하였다.

③ 이익잉여금

앞서 우리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공부하면서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관해 공부하였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변동을 표시해 주는 것에 비해 자본변동표 상의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전체의 변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관해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④ 기타항목(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상기의 ① ~ ③ 이외에 재무상태표상에서 자본의 구성항목으로는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있다.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자기주식

과 주식선택권 등이 있다. 그리고 포괄손익이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하는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표 7의 ABC주식회사 자본구성에는 이들 두 항목에 대한 거래가 없는 관계로 표에서 제외하였다.

4.2 자본변동표의 유용성을 알아보자.

앞서 자본변동표는 우리나라에 2007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새로운 재무제표가 도입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비용이 증가함에도 새로운 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자본변동표가 그만큼 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본변동표의 유용성이다.

첫째, 자본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지분의 구성항목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만이 나타나게 되어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 구성항목의 변동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무제표, 주석 또는 부속명세서 등을 참고해야만 하였다. 이에 반하여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변동내용을 설명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의 변동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둘째, 재무제표 간 연계성 제고 및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자본변동표는 재무제표간의 연계성을 제고시키며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높인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재무상태표와 연결할 수 있고, 자본의 변동내용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정보와 연결할 수 있어 정보이용자들이 더욱 명확히 재무제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포괄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자본변동표는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항목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나 해외사업환산손익등과 같은 미실현손익이 포함되는데, 자본변동표는 이러한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용을 나타냄으로써 손익계산서로는 전부 나타낼 수 없는 포괄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5. 현금흐름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현금이다. 기업이 도산하는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은 현금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자금압박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의 유입

과 유출 내용에 관한 정보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성·보고하는 것이 현금흐름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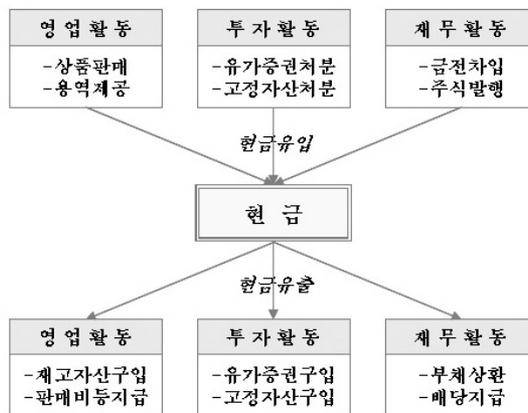
또한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각각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초의 현금잔액이 기말의 현금잔액으로 변동하는 원인을 기업의 활동⁷⁾별로 설명한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활동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0**과 같다.

이상과 같은 원리와 목적으로 작성 보고되는 현금흐름표를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표 8**은 ABC 주식회사의 현금흐름표를 요약한 것이다⁸⁾.

표 8에서 보면 2008년의 기초현금은 2007년의 기말현금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07년의 기말현금이 2008년의 기초현금으로 이월되어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2008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말현금이 기초

<표 8> ABC주식회사의 현금흐름표(요약)

| 과 목 | 2008년 (천원) | 2007년 (천원) |
|-------------------|------------|------------|
|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441,050 | 320,000 |
|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800,000 | - |
|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620,000 | -300,000 |
| IV. 현금의증가(감소) | 261,050 | 20,000 |
| V. 기초의현금 | 165,000 | 145,000 |
| VI. 기말의현금 | 426,050 | 165,000 |



[그림 10] 활동별 현금흐름

7) 플랜트저널, Vol.5, No.3, pp.21~22 참조

8) 플랜트저널, Vol.5, No.3, p.19 <표 5> 참조



〈표 9〉 패턴별 현금흐름의 일반적 의미

| 패턴 | 영업활동 현금흐름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일반적의미 |
|----|-----------|-----------|-----------|---|
| #1 | + | + | + | 영업활동에서의 창출한 현금, 자산매각대금 및 재무활동에서 조달한 현금을 비축해서 타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기업 |
| #2 | + | - | - |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으로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있으며, 또한 부채를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 |
| #3 | + | + | - |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과 자산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 |
| #4 | + | - | + |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과 차입금 또는 주주의 출자금으로 회사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
| #5 | - | + | + |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고정자산의 매각과 차입 또는 주주의 추가 출자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는 기업 |
| #6 | - | - | + |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영업활동에서의 현금 부족과 고정자산 구입에 필요한 현금을 장기 차입금이나 신규출자액으로 보충하고 있는 기업 |
| #7 | - | + | - | 영업활동에서의 부족 현금과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이나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고정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기업 |
| #8 | - | - | - | 영업활동에서의 부족현금과 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환액 또는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현금 비축액으로 해결하는 기업 |

현금보다 261,050천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한 금액의 내역은 위의 I~Ⅲ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영업활동으로 441,050천원 증가, 투자활동으로 1,800,000천원 감소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1,620,000천원 증가한 결과이다⁹⁾.

마지막으로 기업별 현금흐름표의 결과를 해석하여 보자.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세 가지 활동별로 현금흐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밝혀주는 재무제표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각 기업별 현금흐름의 상태는 총 8가지¹⁰⁾의 경우로 나타난다. 이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의미를 8개의 패턴으로 구분하여 표 9로 정리하였다.

6. 재무제표 상호간의 관계

우리는 지금까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

| 과목 | 2008-12-31 | 2007-12-31 |
|---------------|------------|------------|
| 자 산 | | |
| I. 유동자산 | 4,625,050 | 965,000 |
| 1. 현금및현금성가물 | 426,050 | 165,000 |
| II. 비유동자산 | 3,040,000 | 1,480,000 |
| <<자산 총계>> | 7,666,050 | 2,445,000 |
| 부 채 | | |
| I. 유동부채 | 2,055,260 | 170,000 |
| II. 비유동부채 | 720,000 | 810,000 |
| <<부채 총계>> | 2,775,260 | 980,000 |
| 자 본 | | |
| I. 자본금 | 1,300,000 | 800,000 |
| II. 자본잉여금 | 1,500,000 | - |
| III. 이익잉여금 | 2,090,790 | 665,000 |
| 1. 당기순이익 | 1,665,790 | 450,000 |
| <<자본 총계>> | 4,890,790 | 1,465,000 |
| <<부채와 자본 총계>> | 7,666,050 | 2,445,000 |

〈손익계산서〉
손익의 내역을 설명한다.

〈현금흐름표〉
현금증감내역을 설명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증감내역을 설명한다.

〈자본변동표〉
자본항목의 변동내역을 설명한다.

[그림 11] 재무제표 상호간의 관계도

하고 있는 5가지의 재무제표 각각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는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렇다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활용되는

9) 각 활동별 증감명세는 플랜트저널, Vol.5 No.3, p.19 <표 5> 참조

10) 증가 또는 감소가 3가지 활동별로 나타나므로 2³=8가지임



재무제표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상수가 투자하여 주주총회 자료로 보고받은 ABC주식회사의 재무제표¹¹⁾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간 상호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1은 재무제표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ABC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으로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11에 보듯이 재무제표의 중심에는 재무상태표가 놓여있다. 또한 재무상태표만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이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의 과정에서 재무상태표 이외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하단의 주석 11)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선, **표 9**의 재무상태표 상에서 2008년도의 당기순이익 1,665,790천원에 대한 산출명세서는 ABC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표 4**, **표 5**를 참고하고 각자가 연구하여 보기 바란다.

다음으로 위의 재무상태표 상에서 이익잉여금이 전년말 665,000천원에서 당해 연도말 2,090,790천원으로 1,425,790천원이 증가하였다. 이 또한 플랜트저널 9월호에 게재된 ABC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즉,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65,000천원에서 전기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금 240,000천원을 공제하고 다시 2008년 중에 달성한 당기순이익 1,665,790천원을 가산하면 당기말 현재의 이익잉여금 잔액이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본총계의 금액 변동에 관한 내역이다. 이는 자본변동표가 설명하여 준다. **표 7**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림 11**의 재무상태표 상에서 현금(현금및현금등가물) 잔액을 보면 전기말 현재 165,000천원에서 당기말 현재 426,050천원으로 265,050천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 또한 위의 “5. 현금흐름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표 8**을 참고하기 바란다. (KIPIC)

11) 플랜트저널, Vol.5, No.3, pp.18~19, <표 1> ~ <표 5> 참조